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16편

Jeff Pippenger

2025-12-22

숫자 열여섯

본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말이 길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요엘서를 직접 살필 때 적용하려는 논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예언적 단서를 미리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요엘서에서 '끊어지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브라함 시대에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던 희생 제사 방식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아, 깨어 올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 때문에 울부짖어라;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요엘 1:5.

히브리어 단어 "cut off"는 H3772이며, 이것은 '기본 어근'으로서 '자르다(떼어 내거나, 베어 넘어뜨리거나, 두 동강 내다); 확대해서는 파괴하거나 소멸시키다; 특히 언약을 맺다(즉, 동맹이나 거래를 맺다. 본래는 살을 베어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감으로써)'라는 의미이다.

나는 스트롱 사전에서 'cut off'를 문법적 의미에서 'primitive root'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언약과 아브라함과 관련된 자름은 언약의 빛이 그 단어에 결부되어 있고 그 빛이 그 원초적 역사적 뿌리에서 제시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cut'는 언약사의 관점에서 그 원초적 뿌리에 기초한 예언적 상징이며, 또한 문법적으로도 'primitive root'로 식별된다.

5절의 선언은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늦은 비의 메시지를 그들이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그들의 "원초적 뿌리"를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때 그 자리에서' 거절되었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

광야에서 사십 년에 걸쳐 죽어간 세대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까지 자신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갔다.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도 자신들의 기원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기원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암흑시대에서 나왔고, 1844년에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시험을 받아 제쳐짐을 당한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1844년 10월 22일 지성소에 들어간 밀러파 필라델피아 운동도 자신들의 기원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1863년에 예리고를 재건한 밀러파 라오디게아 운동도 자신들의 기원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머지않아 닥칠 일요일 법령 때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려지는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도 자신들의 기원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 모든 세대는 포도원 비유를 성취했거나 성취할 것이다.

요엘서의 술 취한 자들은 깨어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림받았고, 늦은 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반대가 곧 사실이다. 요엘이

"영광의 관"을 쓰고 있다고 지목하는 자들은 언약에 들어가 인침을 받고 제물로 들어 올려진다.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 사이에 처음으로 확증된 언약은, 일요일 법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희생에서 표상되는 것과 같은 "베어냄"으로 시작되었다. 그 "베어냄"은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다. 가라지는 버림받아 불 속에 던져지고, 알곡은 오순절의 첫 열매인 밀 제물로 한데 묶여, "옛날과 같이" 들어 올려진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지목되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이는 언약의 일부가 아니라, 약속으로의 부르심이다. 그 시점에서 그의 이름은 아브람인데, 언약 관계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이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람의 이름은 언약의 네 단계 가운데 셋째 단계에서 바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더 큰 이를 두고 맹세하실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하게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그리하여 그가 오래 참은 후에 그 약속을 얻었느니라.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보다 큰 이를 두고 맹세하며, 확증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툼의 끝이 되느니라. 이로써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 뜻의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이시고자 하여, 맹세로 그것을 확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달려간 우리가 강한 위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망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 견고하고 확실하며, 휘장 안쪽까지 들어가나니, 그리로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신 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시니라. 히브리서 6:13-20.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 뒤에 이어진 '맹세'로 두 번째 증거를 더해 주셨다. 그 뒤에 이어진 '맹세'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단계인 약속의 부르심 이후, 둘째, 셋째, 넷째 단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실제의 세 부분 언약이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극적인 의식을 통해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수립)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다. 약속의 땅은 두 강 사이의 땅, 곧 애굽의 강과 유브라데 강으로 묘사되었다. 세 부분 언약의 첫 단계에는 두 강이라는 예언적 상징과 그 상징에 수반되는 모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영감이 올래 강과 히데겔 강을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사건들로 가리킬 때, 그 두 강은 아브람의 예언에서 예표되었다. 배경은 아브람의 두 강 사이에 있으며, 여기에 다니엘의 두 강을 합하면 네 강이 되니, 그리스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이르시되,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었노라. 애굽의 강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니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라. 창세기 15:18-21.

아브람에게 약속된 땅은 온 세상으로서, 말세에는 열 왕으로 대표되지만, 언약의 초기에는 왕들이 아니라 열 지파로 열거되었다. 십사만 사천은 온 세상과 대립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세상은 땅의 열 왕을 다스리는 계시록 17장의 주홍빛 음녀의 지휘 아래, 단일 세계 정부에 의한 일요일 예배 강제 시행이라는 시험 과정에 연루되게 될 것이다.

아브람의 경우, 짐승의 우상이 나타내는 교회와 국가의 상징은 국권의 상징인 애굽의 강과 교권의 상징인 바벨론의 강으로 표현된다.

이 일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람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내 집의 청지기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나이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가 능히 셀 수 있거든 별들을 세어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네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말하였다. 주 하나님, 제가 그것을 상속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세 살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세 살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세 살 된 수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나를 위하여 취하라.

그는 이것들을 모두 가져다가 둘로 쪼개어 각 조각을 서로 마주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않았다. 새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왔을 때,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가 지려 할 때, 깊은 잠이 아브람에게 임하였고, 보라, 크고 짙은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은 자기 것이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리니, 그곳 사람들이 사백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요,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좋은 노년에 장사될 것이다.

그러나 네 번째 세대에 그들이 다시 여기로 올 것이다.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보라,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햇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 창세기 15:1-17.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그분께서 연기 나는 화로와 불타는 등불처럼 그 "잘린"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어 낮에도 밤에도 나아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서 거두지 않으셨다. 출애굽기 13:21, 22.

불타는 등불과 연기 나는 화덕은 구름기둥 또는 불기둥을 예표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는 데 관여하는 세 단계 가운데 첫 단계의 예언적 요소를 나타낸다. 그 장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며,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에는 두 부류가 있으므로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언약 본문을 더 들어가 보면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세 천사는 요한이 제시한 성령의 사역과 상응한다. 요한은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특징들은 세 천사와 일치하므로, 언약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제시된 다음 둘째 단계인 의가 드러나고, 이어서 심판의 선포가 뒤따르는데, 이는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이자 셋째 천사의 메시지이다. 언약의 첫 단계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예표했으며, 그것은 언제나 세 메시지 전체의 프랙탈이다. 언약 과정의 세 단계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나타낸다.

아브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둘째 천사를 표시한 후, 그는 제물을 준비한다. 이는 그 제물이 심판의 세 번째 단계 직전에 준비되기 때문이다. 그 제물은 말라기 3장의 레위인들의 제물, 곧 깃발처럼 높이 들려지는 제물을 표상한다. 모세의 생애에 있는 세 번의 사십 년 기간이 세 천사의 기별을 표상하듯, 모세의 첫 사십 년에는 세 천사의 기별의 세 단계가 모두 담겨 있다.

모세의 증언은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부터 시작되며(첫 번째 단계),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을 통한 시험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도 보이는 것을 통한 시험을 포함하는데, 이는 다니엘서 1장에서처럼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벨론의 식단을 먹기를 거부하고, 이어서 그의 외모를 근거로 시험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에게는 3년 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세 번째 시험이 주어졌는데, 느부갓네살은 북방 왕과 일요일 법을 상징하며, 이 일요일 법은 곧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를 물에 띄운 갈대 상자에 넣었고, 바로의 딸은 그 상황을 보게 되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내렸다. 모세의 생애의 시작은 하나님인 인류와 맺으신 언약의 예표였으며,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한 민족과도 언약을 맺으셨다. 노아의 인류와의 언약은 큰 무리를 나타내고, 모세를 통해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은 십사만 사천을 가리킨다.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아브람이 드리려 했던 제물은 노아의 언약의 상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수세기 후 아브람의 예언을 성취한 모세도 마찬가지였다.

그 제물은 다섯 가지 동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세 살 난 암송아지, 세 살 난 암염소, 세 살 난 수양, 산비둘기, 그리고 어린 비둘기였다. 새들은 온전한 채로 두었고, 암송아지와 수양과 암염소는 둘로 '쪼갠다'. 그 제사는 말세에 인류를 위한 시각적 시험으로서 기호를 들어 올리는 일을 예표한다. 바로의 딸에게 주어진 시각적 표징은 갈대 상자 속의 아기 모세였다. 방주는 그 방주에 있던 여덟 영혼으로 상징된다. 숫자 '여덟'은 십사만 사천의 기호의 예언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확립된다. 다섯 가지 동물 제물을 고려하여 그중 셋을 반으로 나누면, 제물은 노아로 예표된 바와 같이 여덟 조각으로 이루어지며, 이어서

아브람의 제사에서 확인된다.

그 다섯 마리 동물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쪼개졌을 때, '여덟'이라는 수를 상징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방주에 있던 '여덟' 영혼으로 예표된 세상 끝의 영혼들을 상징한다. 아브람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언약에서 두 번째 단계인 할례의 표징은 태어난 지 '여덟'째 되는 날에 시행되어야 했고, 그 예식은 세례로 대체되었는데, 세례는 '여덟'째 날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여덟'이라는 수는 노아와 모세의 언약 모두의 확립된 특징이며, 그 언약들은 기치 제물로서 높이 들려질 십사만 사천을 예표하며, 그들은 일곱에 속하는 '여덟'이다.

그 다섯 동물은 방주의 '여덟'로 예표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상징하며,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옮겨 갈 것이다.

아브람의 제물은 정결한 제물이었는데, 그 제물로 바쳐진 모든 짐승이 정결한 짐승들이었고, 그것들이 함께 번제에 사용되는 주된 짐승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세 시대에 아브람의 예언이 성취될 때 제정될 성소 봉사의 주요 희생 제물들은 경배의 제물로 제시되며, 동시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부름을 예표한다.

1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예표하는 세 단계 가운데 첫 번째를 나타낸다. 창세기 15장의 언약 단계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대표하며, 이어지는 둘째 천사는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 있는 아브람 언약의 두 번째 단계로 예표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다. 아브람은 '아버지가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아브람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브람의 이름이 바뀔 때까지 그 약속은 확증되지 않았다. 그때 그는 선택된 언약 백성의 시조가 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고, 그것이 십자가를 예표했으며, 십자가는 다시 1844년 10월 22일을 예표했고, 그것은 다시 일요일 법령을 예표했다—곧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언약의 세 번째 단계는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으며,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다.

아브람의 이름이 바뀌는 둘째 단계, 곧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할례 의식이 언약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제정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 속에서 인침을 받는다. 그들은 일요일 법령으로 대표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 때에 기치로 높이 들려지지만, 인침은 일요일 법령 직전의 기간에 이루어진다. 이는 밀러주의 역사에서는 1844년 10월 22일 문이 닫히기 직전의 때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의 도래로 끝난 2300년 예언을 시작하게 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세 칙령도 그러하다. 성전은 첫째 이후이지만 셋째 이전인 둘째 칙령의 시기에 완공되었다. 기초는 첫째 칙령 때 놓였고, 성전 건축은 둘째 칙령의 시기에 끝났다. 기원전 457년의 셋째 칙령이 2300년을 시작했으며, 그 칙령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국권을 돌려주었다. 셋째 이정표에서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는 셋째 칙령에서의 국권 회복과 일요일 법령 때 승리하는 교회가 기치로 높이 들려지는 것으로 표상된다.

세 번째 칙령은 1844년 10월 22일, 혼인식에 도착하는 셋째 천사를 예표했다. 신부는 혼인식에서가 아니라 혼인식 전에 자신을 준비한다. 14만 4천 명의 인침은 예언적으로 "짐승의 형상 시험"으로 표현되는 기간에, 일요일 법령 직전에 이루어진다. "짐승의 형상 시험"은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주께서는 짐승의 우상이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형성될 것임을 내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시련이 되어, 그들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입장은 너무도 뒤죽박죽된 모순의 집합이어서, 속임을 당할 자는 극히 적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주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3:11-17 인용]."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거짓 안식일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입증한 모든 사람은 주 하나님 여호와와 기치 아래 서게 될 것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기원한 진리를 저버리고 일요일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5, 15.

1844년 10월 22일에 문이 닫혔는데, 이는 일요일 법령에서의 닫힌 문을 예표한 것이다. 화이트 자매는 짐승의 우상 시험이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라고 말하며, 또한 그 시험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일요일 법령 이전에 신부는 스스로를 준비하는데, 이는 합당한 혼인 예복을 갖추는 것을 필요로 하며, 그 예복은 언약의 사자가 연단하는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인침은 혼인 전에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 혼인은 일요일 법령 때 거행된다.

화이트 자매는 봉인이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리에 굳게 자리 잡는 것임을 밝힌다. 그녀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봉인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 흔들림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지진에서 시작되는 심판이며, 곧 미국의 일요일 법이다.

밀러파 성전은 한밤중의 외침 때 완성되었는데, 이는 인침이 심판의 세 번째 이정표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심판의 세 번째 단계는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의 레위인들의 제물도 예표하였다.

그는 은을 정련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그들이 주께 의롭게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이전의 해와 같이 주께 기쁨이 되리라.

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가까이 이르겠고, 주술사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의 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속히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라기 3:3-5.

정결의 과정이 끝난 후, 그 제물은 '그때' 옛적과 같이 될 것이며, 그 제물은 심판의 마지막 행위 동안 준비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정결케 되어 제물로 준비된 레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신속한 증인"이 되실 미련한 처녀들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그 "신속한 증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썩나를 공처럼 먼 들판으로 내던지시고, 라오디게아인들을 그의 입에서 분출하듯 토해내시는 분이다.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는 신속할 것이다. 마지막 움직임이 급속히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 신속한 전령은 말라기 3장에서 자신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그분이다.

말라기에서 '옛날과 같이'라 한 제물을 들어 올림은, 십사만 사천의 기치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고; 오순절에 요제로 흔드는 두 떡의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고; 광야에서 장대 위에 뱀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들리심이었었고; 온 세상이 놀라고 경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림받은 것이었고; 1843년 도표의 출판이었으며, 1850년 도표의 의도된 목적이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두 번째 단계에서 할례 의식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언약의 표징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달리 이삭에게 즉시 할례를 행했으므로, 세 번째 단계에서 그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이삭은 그 표징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표징은 훗날 세례로 대체되었고, 이 둘은 함께 십자가의 표징에 대한 두 증거가 된다.

그분의 백성들의 이마에 새겨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은 읽을 수 있으나 인간의 눈은 읽을 수 없는 표이다. 이는 멸하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성 있는 마음은 주께서 양자 삼으신 아들딸들에게서 갈보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가 제하여졌다.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신실하다. 원고 발표, 번호 21, 51.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첫 단계에서 종살이의 400년에 대한 기간 예언이 제시되고, 바울은 같은 기간을 430년으로 밝힌다. 바울의 계산은 아브람의 나그네 생활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면밀히 살펴보면, 삼십 년과 관련된 사백 년은 바울이 제시한 하나의 상징이고, 아브람이 제시한 사백 년은 또 다른 상징이다. 그렇다면 사백 년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고, 사백삼십 년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며, 삼십 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은 430년이 215년씩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는데, 첫 시기는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웠고, 둘째 시기는 노예 상태였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에 들어갔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25년 후)에 태어났다. 야곱은 이삭이 60세였을 때 태어났고,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에 들어갔다. 이는 가나안에서 215년, 이집트에서 215년으로 합해 430년이 된다. 예언을 공부하는 이에게 이것은 두 언약의 상징에서 나온 두 가지 증언을 제공하는데, 아브람이 이름이 바뀐 것처럼 바울도 그렇다. 바울은 430을, 아브람은 400을 지목한다. 서로 관련된 두 기간 예언의 줄 위에 줄의 성취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세워지는 데 이르게 한 최초의 언약 기간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 오셨을 때, 그 한 이레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시간 예언을 나타냈다. 바울의 430년 예언은 그리스도의 한 이레와 마찬가지로 둘로 같은 길이로 나눌 수 있다. 가나안에서의 215년과 그 뒤를

이은 애굽에서의 215년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1260일 동안 증언하시고 이어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1260일 동안 계속된 그리스도의 증언을 예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2520일은 또한 '그의 언약의 다툼'이라 불리는 일곱 때를 나타내기도 한다.

기원전 723년부터 1798년까지는 2520년이며, 그 기간은 각각 1260년의 두 시기로 나뉘어, 먼저 1260년 동안 이교가 성소와 군대를 짓밟고, 이어 1260년 동안 교황주의가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한 주간의 한가운데는 십자가였고, 그 주간의 한가운데(538)는 1260년의 이교적 증언을 낳은 뒤, 이교의 교황적 제자에게서 나온 1260년의 이교적 증언을 낳는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 권세를 부여받았을 때,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권세를 부여받은 538년을 예표했다. 십자가에서 문자적 이스라엘은 물러나고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 538년에는 문자적 이교가 물러나고, 영적 이교가 시작되었다.

아브람이 받은 400년의 예언은 430년으로도 제시된다. 그것은 같은 예언이지만 두 가지 언약의 상징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로 관련된 그 두 기간 예언은 고대 이스라엘 언약사의 시작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백성의 속박과 해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언약사의 끝에는, 하나의 기간 예언이 다른 예언과 하루를 일 년으로 보는 관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일치하며, 이로써 해방과 속박을 강조하는 두 개의 기간 예언이 드러난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을 잇는 중간 시기에, 우리는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다니엘을 보게 된다. 속박과 해방의 약속을 밝혀 주는 그 언약의 역사로부터,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와 현대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를 묶어 주는 예언이 제시된다.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기간 예언이 제시되어 있다. 레위기 26장의 모세의 '일곱 때'에 대한 '맹세'는 다니엘 9장 11절에서 확인되며, 또한 다니엘 8장 13절의 질문은 14절의 답으로 이어져 2300년의 예언을 가리킨다. 그 '맹세'는, 어길 경우 다니엘 9장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저주'가 되며, 남왕국을 상대로 기원전 677년에 집행되어 2300년과 마찬가지로 1844년 10월 22일에 끝났다. 두 가지 2520년의 흠어짐은 13절의 질문 속에 담겨 있으며, 14절의 답은 2300년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에서 알파였던 모세의 경우와, 그 언약 역사에서 오메가였던 그리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 이스라엘의 시작인 알파 역사에도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시간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는 속박과 노예 상태를 나타냈고, 다른 하나는 해방을 나타냈다. 고대 이스라엘의 알파 역사에서 430년이 두 동등한 기간으로 나뉜 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주간에 반복된 예언적 분할을 예표했다. 또한 언약을 어긴 데 대한 상호 연관된 심판 기간도 두 동등한 기간으로 나뉘었는데, 이 둘은 현대 이스라엘의 알파 역사에도 유사한 예언적 기준점이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2520년과 2300년이 함께 끝나는 것은, 중간에서 균등하게 나뉘는 예언을 내포한 상호 연관된 두 시간 예언에 대한 세 번째 증거를 제공한다.

세 증인이 한 영혼으로 하여금, 현대 이스라엘의 오메가 역사에서 주께서 십사만 사천과 언약을 맺으실 때 예언적 시간에 관한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예언과, 그와 연결되어 동일한 두 부분으로 나뉘는 한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럴 수 없다. 주께서 현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시고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십사만 사천의 언약은 첫 열매인 밀 제물 가운데 흔들어 드리는 두 덩이 떡으로 상징된다. 세 증인의 예언적 구조와, 그 뒤에 예언적 시간의 구분이 없는 이중 증언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브람이 드린 제물인 똑같이 둘로 나눈 암송아지, 암염소, 숫양과 그 뒤의 산비둘기와 비둘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처음의 세 제물에는 상징에 모두 3년이라는 기간이 연계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예언적 시간을 지닌 세 가지 제물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세 제물은 모두 예언적 시간을 지녔을 뿐 아니라, 각각의 예언적 시간은 두 기간으로 동등하게 나뉘어 있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에는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어린 것만 요구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언약 백성의 마지막 세대를 대표하기 때문이며, 그 세대는 두 마리의 새, 또는 두 무리로 대표된다.

두 무리는 큰 무리와 십사만 사천을 상징하지만, 두 마리 새는 부차적인 의미를 지닌다. 비둘기는 성소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하나이며, 비둘기를 제물로 규정한 내용을 찾아보면 대개는 산비둘기 종류를 뜻한다. 그러나 아브람의 제물에서의 비둘기는 아직 깃털이 나지 않을 만큼 어린 새, 아니면 더 심하게는 깃털이 뽑힌 새를 가리킨다. 이 예언적 차원에서 두 마리 새는 알곡과 가라지다.

말세에 그 깃발이 새처럼 하늘로 들어 올려질 것이며, 바로 그때 두 마리의 부정한 새가 사악함을 들어 올려 시날에 있는 그녀의 보좌에 앉히려 할 것이다.

그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서 내게 이르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나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더라.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이까? 그가 이르되, 이는 나가는 에바니라 하고, 또 이르되, 이는 온 땅에 있는 그들의 형상이니라 하더라. 보라, 낱 한 달란트가 들려졌고, 에바 한가운데 앉아 있는 여인이 있더라.

그가 말하였다. "이는 악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에바 한가운데에 던져 넣고, 낱으로 된 무게추를 그 입구 위에 던졌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들의 날개가 바람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었고, 그들이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에 들어 올렸다.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시날 땅에 그것을 위한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세워지면, 거기에 제 자리 위에 놓일 것이다.' 스가랴 5:5-11.

'사악함'으로, 혹은 바울에 의해 '그 사악한 자'로 표현된 교황권은, 그녀가 앉아 있는 광주리 위에 한 달란트의 낱이 올려졌던 1798년에 치명상을 입었다. 그 후 심령술과 배도한 개신교가 그녀를 들어 올려 스날 땅에 그녀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이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호로 들어 올리실 집의 건축을 마치신다. 스가랴에서 거짓 기호는 사악함의 여인이며, 그 기호는 비둘기로 표현된다. 그때 세상은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새장인 로마와, 인류와의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비둘기 사이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귀신들의 거처와 각종 더러운 영의 소굴과 각종 부정하고 가증한 새의 감금처가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2.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하여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흘은 모세 때와 그리스도 때, 그리고 밀러파의 때와 같이 성전이 세워지는 예언적 기간을 상징한다. 아브람이 드린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숫양을 각각 세 살로 요구하신 규정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 가지 언약의 역사 각각에서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나타낸다. 십사만 사천의 최종 언약 성전은 하늘에 면류관처럼 들려 올려질 깃발이다. 이런 까닭에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숫양은 땅의 짐승들이며, 하늘을 나는 새들과 구별된다. 마지막 날들에 세워지는 언약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모든 언덕들과 산들보다 높이 들려 올려질 때 세워진다.

아직 아브람의 세 가지 언약 단계 중 첫 번째의 모든 요소를 다 밝혀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요소는 고대 문자적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의 시작에 상응하는 대응물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아브람의 첫 번째 언약 단계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들의 세 단계를 보여 주었다. 아브람의 첫 번째 언약 단계에 있는 세 천사의 프랙탈은 아브람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언약 단계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하게 확증될 것이다.

아브람의 "여덟" 제물은 모세의 성소 예식의 일부가 될 제물들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야기에서 예언적 시간의 역할을 밝히고 확증한다. 그것들은 문자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을 확증한다.

바울이 말한 430년은 아브람의 400년과 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예언적 기간이다. 둘을 서로 겹쳐 놓으면 먼저 30년의 기간이 나오고, 그 뒤에 400년이 이어진다. 다음 글은 여기서부터 이어가겠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말세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의 폐허를 본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서한 154, 1906년 5월 26일.